

“내게 거짓 아닌 몸을 보여줘”

한국 사회의 ‘몸매 가꾸기’ 신드롬 해부

김영옥 | 문화평론가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전임연구원

우리는 몸이 화두가 되고 동시에 추문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얼굴을 책임져라’에서 ‘네 몸매를 책임져라’로 여성을 압박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몸매는 거의 모든 여성들의 종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몸매 프로젝트는 상품미학적 측면이 강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필연에 의해 추동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몸의 인간학 · 정치학 · 사회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다.

몸. 몸이 화두가 되고, 동시에 추문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각 가능한 몸의 외형은 일차적으로 자아와 타자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화면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이 화면에 표현하고 또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타자들의 속내를 이 화면에서 읽어낸다. 그러나 몸은 또한 ‘내’가 결코 ‘네’가 될 수 없음을 냉혹하게 지시하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수수께끼로, 타자성으로 남겨지는 나의 ‘너’, 너의 ‘나’.

몸매 프로젝트 속에 숨겨진 상품화의 논리

“네 얼굴을 책임져라.” (필자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 말은 ‘프로젝트로서의 정신’의 정치학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내면 혹은 정신성이 집중적으로 각인돼 나타난다고 여겨졌던 얼굴은 다른 모든 신체부위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때 내면, 혹은 정신성은 당연히 미학적 범주가 아니라 도덕적 범주였다. 그러나 오늘날 식탁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에게 “네 얼굴을 책임져라”는 말 대신에 “네 몸매를 책임져라”는 뼈아픈 충고를 건네며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먹는가, 등록한 헬스클럽에는 잘 다니고 있는가를 묻고 확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도덕적 범주가 아니라, 미학적, 아니 상품미학적 범주다.

얼굴 대신 ‘몸매’가 들어선 이 격언적 문장은

몸을 둘러싼 그간의 많은 성찰적 변화들을 묘하게 패러디하며 무화시키고 있다. 몸은 그동안의 많은 담론적 논의 속에서 내면이니 정신성이니 하는 말로 간단히 축약 ·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일상의 역사성이, 그 고통과 기쁨의 미세한 흔적들이 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서, 복잡 다단한 사회적 관계와 생물학적 구조가 서로 교차하며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의 장소로서, 앞에 대한 근원적인 욕망이 새겨지는 장소로서, 반복적인 재현과 수행성의 결과가 규범으로 정착된 것으로서 이해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은 그간 인류의 두뇌가 개발한 무궁무진한 기술 덕분에,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변형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의식이 저마다의 무의식에 등지를 틀게 됐다. 그러나 “네 몸매를 책임져라”는 격언적 문장에서 ‘몸매’는 이 모든 논의의 ‘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몸’에 비해 한결 더 젠더화돼 강박증처럼 여성에게 적용되는 ‘몸매’의 신화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여성들의 종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 같다. 우리의 컷전을 설세없이 올려대는 ‘쪽쪽뽕뽕’ ‘35-24-35’ ‘175에 48’ 등의 형용사와 수치는 ‘꿈의 궁전’의 첫 문을 여는 마법의 주문이 돼가고 있다. 성형수술을 비롯한 각종 몸 관리 산업들을, 숨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터지는’ 몸매 사건들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으리라. 문제는 그토록 갈망하는 ‘꿈의 궁전’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지하다는 것이다. 몸/매의 프로젝트는 절대적인 미완의 성격에 의해, 즉 죽음의 필연에 의해 추동된다는 것을 점점 더 알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인이 되는 바로 그만큼 자신의 생에 대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몸의 궁극적인 한계인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몸에 새겨진 한계들을 제거하는 데 한사코 매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인의 신경증이라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몸/매’와의 사투는 조금 더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다.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해악 불러와

자신과 임신한 부인의 벌거벗은 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예기치 못한 물의”를 빚은 중학교 미술교사의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 사회에서 ‘벗은 몸’은 애매모호한 이중구조의 선입견 속에 갇혀 있다. 곰팡이처럼 번져가는 원조교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경찰서장이 공창제도를 고려해볼 만큼 무성한 성매매, 국토의 상당 부분을 울긋불긋 장식하는 러브호텔들, 유방 수술의 고백과 함께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누드를 홈페이지에 올려 화제의 주인공이 되는 여배우 등등 이 사회를 온통 축축하게 적시는(혹은 뜨겁게 불태우는?) 외설에 대한 호기심은 보여질 수 있는 몸과 보여질 수 없는 몸, 허락된 섹스와 허락되지 않은 섹스에 대한 대단히 불명확한, 그리고 대단히 비겁한 판단기준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몸매에 대한 지나친 상품미학적 집착 역시 이와 동일한 심리적 맥락 속에 위치해 있다.

벗은 몸은(그리고 벗은 몸과의 교류는) 타자의 타자성이 부드럽게 완화돼 좀더 소통적인 드러남을 가능케 하기에 욕망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벗은 몸과 성적 욕망과 몸매의 정치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이제 정말 몸에 대해, 몸의 인간학, 사회학, 정치학에 대해 말꼬를 트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포르노그래피가 돼버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포르노 연기를 하는 ‘이상한 나라의 배우들’이 돼버리지 않을까? ●